WORLD ECONOMY UPDATE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 ISSN 1976-0515 | Vol. 10 | No. 21 | 2010년 7월 16일

2010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I. 선진경제권	II. 신흥시장권	III. 개도국 경제권
1. 미국	1. 중국	1. ASEAN
2. 일본	2. 인도	2. 중동
3. EU	3. 러시아	3. 아프리카
	4. 브라질	4. 중앙아시아

KIEP 1990-2010

주 요 내 용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2010년 1분기에 본격화됨.

-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과열의 양상도 나타남.

-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 민간소비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2010년 본격화된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지역의 완만한 성장세와 각국 정부의 재정여력의 소진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상반기에 비해 회복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형'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선진 경제권은 미국 주택경기 회복세 및 소비심리 약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상반기와 같은 견조한 경기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당초 예상되었던 하반기 출구전략 시행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신흥 시장국의 경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경제권: 경기회복세 감속 하에서도 꾸준한 회복세가 전망됨.

- 2010년 하반기 미국경제는 상반기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가 2010년 전체적으로 3% 내외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전망임. 그러나 주택시장 회복 둔화, 남유럽 재정위기 잔존, 고용부진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2010년 1분기에 1.2% 성장한 일본경제는 하반기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형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디플레이션과 실업은 약간 개선되나 하반기 중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로 보임.

- 남유럽 재정위기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EU 경제는 하반기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 시장권: 고성장 속에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중국경제는 중국정부의 자산시장 및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성장률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 2010년 8%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인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루피화 강세가 예상됨. 브라질 경제는 7% 대의 고성장이 전망되며 출구전략이 지속될 것임.

-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심각한 경기후퇴를 겪은 러시아 경제는 2010년 하반기 5% 내외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 경제권: 불안정한 경기회복세와 국가간 편차 확대

- 동남아경제는 2010년 하반기에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나, 국가별 편차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미얀마 등은 7%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아프리카·중동 경제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7%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는 반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I. 선진경제권

1. 미국

가. 최근 경제 동향

■ 2010년 미국경제는 재고확충 및 설비투자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2.7%(수정치) 성장하였음. 민간소비 회복이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고용상황 개선 및 주가 상승에 따른 가계자산 증가가 소비회복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

표 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09년					2010년 1/4
	1/4	2/4	3/4	4/4	연간	
GDP	-6.4	-0.7	2.2	5.6	-2.4	2.7
소비지출	0.6	-0.9	2.8	1.6	-0.6	3.0
비거주투자	-39.2	-9.6	-5.9	5.3	-17.8	2.2
거주투자	-38.2	-23.3	18.9	3.8	-20.5	-10.3
수출	-29.9	-4.1	17.8	22.8	-9.6	11.3
수입	-36.4	-14.7	21.3	15.8	-13.9	14.8
정부지출	-2.6	6.7	2.6	-1.3	1.8	-1.9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2010년 6월).

■ 개인소비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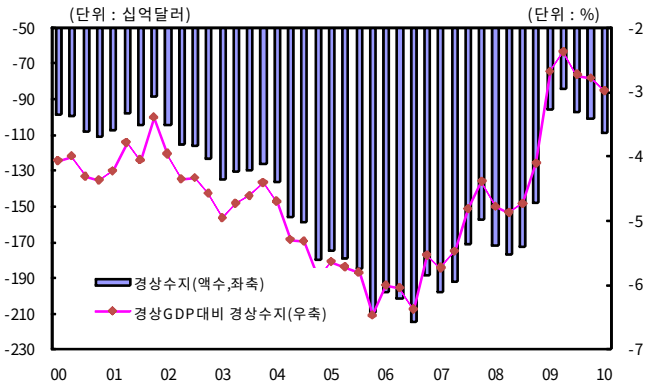
- 개인소비지출(PCE)이 전기대비연율 3.0% 증가하여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고용시장의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지출 회복지속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관련 지출을 제외하는 경우 내구재의 성장기여도가 높지 않아 경기회복의 지속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었으나 2009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함.

- 2010년 1분기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1,090.1억 달러(명목 GDP 대비 -3.0%)로, 2009년 2분기 844.5억 달러(GDP 대비 -2.4%), 3분기 975.0억 달러(GDP 대비 -2.7%), 4분기 1,009.1억 달러(GDP 대비 -2.8%)에 비해 다소 증가함.

그림 1. 경상수지적자 추이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2010. 6).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및 유동성공급 확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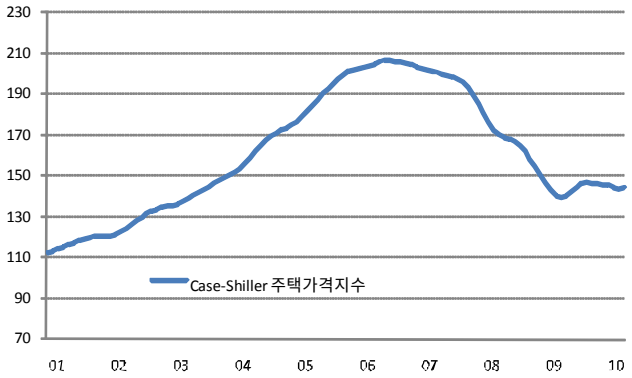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3월 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에 하락세(-0.1%)로 반전한 후 5월에도 -0.2%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원유가격 상승세 둔화에 기인함.

■ 정부의 주택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시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일시적인 주택시장 개선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8,000달러)와 연준의 모기지증권(MBS) 등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의 효과에 기인함.

- 20대 도시기준 4월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20대 도시)는 144.56(전월대비 0.8% 상승)을 기록[1]하였으나, 전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그림 2.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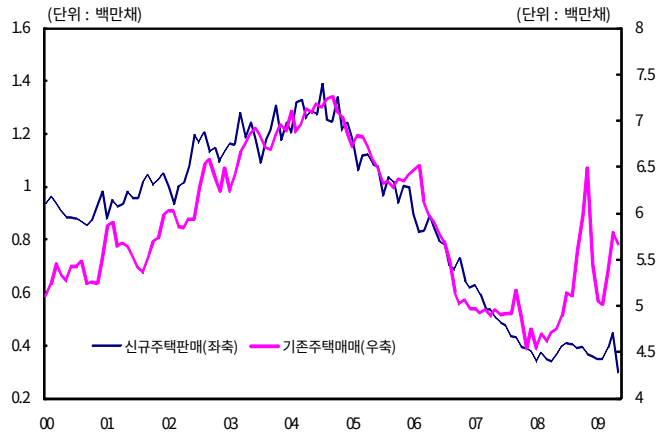


자료: Case-Shiller(2010. 6).

1) 4월 S&P/Case-Shiller주택가격지수 상승은 2010월 4월 30일 종료된 정부의 주택매입 세제혜택에 따른 주택구입 증가 등에 기인함.

- 그러나 주택매입 세제혜택 종료와 고용부진으로 인해 2010년 5월 신규주택판매와 기존주택판매가 각각 30.0만 채(전월대비 -32.7% 하락), 연 566만 채(전월대비 -2.2% 하락)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3. 신규 및 기존주택판매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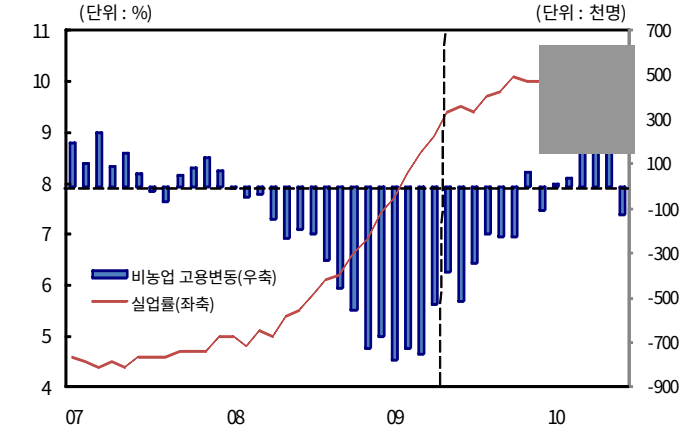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Case-Shiller(2010. 6).

■ 최악의 고용침체 상황에서 벗어났으나, 고용시장 개선은 지연됨.

-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6월에도 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함.

- 2010년 1월 이후 연속적으로 증가하였던 비농업부문 고용은 6월 들어 정부의 2010년 인구조사 종료로 인해 인구조사요원 임시직 고용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월대비 12만 5,000명 감소함.

그림 4. 비농업부문 고용변동 및 실업률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2010. 6).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10년 미국경제는 3% 내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시장 개선 지연, 상업용모기지 부실 등에도 불구,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주정부 재정악화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잔존함.

- 고용시장 조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경제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GDP 전망(2010~11년)

(단위: %)

전망 기관	2010년	2011년
IMF	3.1	2.6
Global Insight	3.4	2.8
OECD	3.2	3.2
EIU	3.3	2.0
평균	3.3	2.7

자료: IMF; OECD(2010. 5); Global Insight(2010. 6); EIU(2010. 7).

■ 2010년 하반기에도 고용시장 개선지연 및 주택시장 회복 둔화 가능성,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요인이 상존함.

-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급속히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2009년 12월 10% 수준까지 상승한 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6월 실업률은 9.5%로 2008년 평균 5.8%보다 약 3.7%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들의 경우 단기 고용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 2009년 5월 이후 5개월 동안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판매가 증가로 돌아서자 주택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에 따른 일시적인 회복으로 판단됨.

○ 정부의 2010년 4월 말 주택매입관련 세제혜택 종료 이전 주택매입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지원이 종료 된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의 주가지수 하락과 금융시장 경색 재발에 따른 미국 경제활동의 위축 가능성이 대두됨.

○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2010년 2월 그리스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함.

○ 이러한 주가하락은 역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 경기선행지표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원유 유출 사고 및 고용과 소득전망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전월 62.7에서 52.9로 크게 하락함.

- 미국 공급자협회(ISM)의 6월 제조업지수도 전월 59.7에서 56.2로 하락하는 등 미국 제조업 경기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하반기 미국 경기의 둔화를 예고하고 있음.

■ 2010년 하반기 중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수출이 수입에 비해 적은 폭으로 감소하는 한편, 회복도 수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됨.

-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6월 FOMC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안정세 기대 등으로 현재(0~0.25%)의 금리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을 천명함.

-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에 기인하여 금융시장 여건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위험요소로 남아있음을 언급함.

다. 한 · 미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미국의 수출확대정책 강화로 인한 통상마찰 증대에 대비가 필요함.

-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과제였던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및 금융개혁법안[2]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외통상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특히 통상정책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5년 내 수출 2배 달성'을 위해 미국 제품 수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외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방안으로 수출확대이니셔티브(NEI),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주요교역상대국과의 무역관계 강화,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주도 등 시장 확대와 고용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 미 FTA 비준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자고 제의한 배경도 미국의 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보임.

■ 한 · 미 FTA 의회비준과 이를 활용한 대미통상전략을 면밀히 준비해나가야 함.

- 한 · 미 양국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한 · 미 FTA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 · 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협의한 바 있음.

○ 미국 일각에서는 한 · 미 FTA의 자동차 교역실태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재협상 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을 설득 압박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함.

연구진

* 국번: (02) 3460

고희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1086)

권정윤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jykweun@kiep.go.kr, Tel: 1193)

2) 동 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부문을 규제하는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지난 6월 25일 상하원 법안 단일화에 합의하였으며, 하원은 6월 30일 찬성 237표(민주당 234표, 공화당 3표), 반대 192표(민주당 19표, 공화당 173표)로 단일법안 가결함.

2. 일본

가. 최근 경제 동향

■ 일본경제는 최근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전후(戰後)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10년 1/4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1.2%(전기대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0.8%)과 EU(0.2%)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한 것임.

○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2009/1Q~2010/1Q, 전기대비)

▸ 미국: -1.6% → -0.2% → 0.6% → 1.4% → 0.8%

▸ 유로지역: -2.5% → -0.1% → 0.4% → 0.0% → 0.2%

표 1.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도 ·전기대비, %)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1Q
			전체	1Q	2Q	3Q	4Q	
GDP	1.8	-3.7	-2.0	-4.2	1.7	0.1	1.1	1.2
소비	1.4	-1.8	0.6	-1.2	1.0	0.6	0.7	0.4
설비투자	1.3	-6.8	-15.3	-9.7	-3.8	-2.1	1.1	0.6
공공투자	-6.4	-6.6	9.3	3.8	7.5	-0.8	-0.9	-0.5
수출	9.3	-10.4	-9.6	-24.8	10.1	8.6	5.8	6.9
수입	1.8	-4.0	-11.8	-18.0	-3.5	5.7	1.0	2.3

주: 회계연도(당년도 4월~익년도 3월) 기준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일본 內閣府(2010. 6. 10).

■ 주요 경제지표별 동향

- 개인소비는 에코카 및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의 각종 경제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2009년 2/4분기부터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최근 가계소비(2인 이상 세대의 실질소비지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개인소비는 자율적인 회복기조에 이르지 못함.

▸ 실질소비지출(전년동월대비): 2010년 1월 1.7% → 2월 -0.5% → 3월 4.4% → 4월 -0.7% → 5월 -0.7%

- 설비투자는 설비과잉감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기업수익의 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제조업의 설비과잉감(과잉-부족[%포인트], 플러스는 과잉):

▸ 2009년 9월 조사: 9월 34, 12월(예측) 30

▸ 2009년 12월 조사: 12월 30, 3월(예측) 28

▸ 2010년 3월 조사: 3월 25, 6월(예측) 22

○ 기업의 경상이익은 비용절감과 생산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추세임.

▸ 전산업 추이(2009/1Q~2010/1Q, 전년동기대비): -69.0% → -53.0% → -32.4% → 102.2% → 163.8%

- 공공투자는 최근의 경기위기 탈출에 큰 기여를 했으나, 2009년 3/4분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됨.

○ 2009년 9월 민주당 신정부의 등장 이후 2009년도 2차수정예산의 일부 감액 등 공공사업의 축소 조정이 있었기 때문임.

- 수출은 2010년 4월 5.9조 엔(월간)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8월의 7.0조 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최저 수준이었던 2009년 1월의 3.5조 엔 수준에 비해 크게 회복됨.

○ 수출 회복은 특히 대중국 및 대아시아 수출이 견인함에 따라 전 세계 대비 지역별 비중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

▸ 중국: 2009년 1월 14.7% → 2010년 4월 19.5%

▸ EU: 2009년 1월 15.0% → 2010년 4월 11.3%

▸ 미국: 2009년 1월 16.4% → 2010년 4월 14.9%

- 실업률은 2009년 7월 5.6%에서 2010년 1월 4.9%로 하락했으나 5월에 5.2%로 다시 상승하여 고용상황은 여전히 심각함.

○ 특히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2010년 5월 10.3%로, 중장년층의 두 배 수준에 달함.

-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2009년 8월 -2.4%(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이래 2010년 5월 -1.2%로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경제전체의 수요부족으로 인해 디플레 상황이 지속됨.

○ 최근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타 제품가격 및 전기요금 등의 하락이 지속

■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은 '경제위기 정책 대응 → 저수준에서의 소비증가'와 '세계경제 회복 → 급속한 수출확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분기별(2009/1Q~2010/1Q) 경제성장에 대한 내 · 외수 기여도:

▸ 성장률: −4.2 → 1.7 → 0.1 → 1.1 → 1.2
▸ 내 수: −3.4 → −0.1 → −0.2 → 0.4 → 0.6
▸ 외 수: −0.7 → 1.8 → 0.3 → 0.7 → 0.7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10년 일본경제는 상반기 성장지속과 하반기 성장둔화라는 '상고하저형' 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는 하반기에 해외경제의 감속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 공공투자의 지속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향후 일본경제 전망

(단위: 전기 · 전년도대비, %)

구분	2010년				2010년도	2011년도
	1Q	2Q	3Q	4Q		
실질GDP	1.2	0.5	0.4	0.3	2.3	1.8
소비	0.4	0.2	0.4	0.1	1.3	0.9
설비투자	0.6	0.9	1.2	1.4	3.8	5.2
공공투자	−0.5	−3.4	−3.2	−3.0	−9.9	−5.3
수출	6.9	3.8	2.0	1.6	16.4	7.4
수입	2.3	3.2	2.2	1.8	8.8	5.6

주: 1) 2010년의 2Q~4Q 수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9개 연구소의 평균값임.
2)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전망치는 일본의 회계연도(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 기준이며, 일본내 19개 민간연구소 전망치의 평균임.
자료: 日本總研 외 18개 민간연구소(2010. 5. 20~25).

– 그러나 하반기 자체로는 완만한 수출증가가 지속되면서 이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제조업 주도의 설비투자 증가도 경제회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공공사업의 예산삭감에 따라 공공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고용 · 소득의 개선이 미약하여 민간소비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일본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2011년까지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19개 민간연구소 전망치 평균: 2010년도 2.3%, 2011년도 1.8%
(5월 20일에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1차 속보)을 반영한 전망치임)
▸ 일본은행(2010.4.30): 2010년도 1.8%, 2011년도 2.0%
▸ 내각부(2010.6.22): 2010년도 2.6%, 2011년도 2.0%

■ 디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은 2010년 하반기에 소폭 개선되고, 엔화 환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디플레이션 갭(현재 25조 엔 규모로 추정)에 의해 2010년도에도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과 신흥국 성장에 따른 자원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물가하락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은 하반기에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수익 증가로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소폭 하락하고, 2010년도는 4.8% 정도로 전망됨.

– 엔/달러 환율은 그리스 위기사태의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후퇴함에 따라 하반기에 1달러=90~95엔으로 예상됨.

표 3. 소비자물가 · 실업률 · 엔화환율 전망

구분	2010년				2010년도	2011년도
	1Q	2Q	3Q	4Q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1.2	−1.3	−1.1	−0.7	−0.9	0.0
실업률 (계절조정, 평균, %)	4.9	5.0	4.9	4.8	4.8	4.6
엔/달러 환율 (기간중 평균치)	90.7	92.3	93.9	95.2	93.4	96.8

주: 1) * 신선식품을 제외
2) 2010년의 2Q~4Q 수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7개 연구소의 평균값임.
3)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전망치는 일본의 회계연도(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 기준이며, 일본내 19개 민간연구소 전망치의 평균임.
자료: 日本總研 외 18개 민간연구소(2010. 5. 20~25).

■ 2010년 중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기상조로 보임.

– 최근 일본은행은 반기 보고서(2010. 4. 30)에서 금융완화정책의 유지를 강조함.

○ 일본 내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11년 4월 이후 금융긴축 실시' 를 전망하고 있음.

▸ 일본 경제기획협회의 5월 조사('ESP전망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39명 중 28명이 조기 출구전략에 부정적이었음.

■ 「신성장전략」과 「재정운영전략」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

– 일본정부는 6월 18일 중장기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6월 22일에는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함.

○ 「신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연평균 명목 3%, 실질 2% 이상 성장).

○ 「재정운영전략」에서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폭을 현재의 절반수준(16.8조 엔)으로 축소하고 2020년까지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그러나 양 전략의 실행에는 문제점과 난관이 존재함.

○ 「신성장전략」의 경우 개별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재정운영전략」의 경우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비세인상(5% → 10%) 언급 이후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함.

■ 향후 일본경제의 리스크 요인

- 첫째,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과열과 그 반동에 따른 경기악화임. 수출부문에서 아시아에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의 입장에서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출구전략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

- 둘째, 유럽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라 엔고가 될 경우 일본기업의 수출 및 수익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10년 말 1유로=100엔(5월 20일 현재 1유로=111엔)으로 엔고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이 0.1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됨.

- 셋째, 4월부터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원가격 급등 리스크가 존재함. 향후 수입비중이 높은 원유 가격마저 상승하게 될 경우 교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한 · 일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일본정부는 아시아를 내수시장화하고 신흥시장 인프라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신흥국 수요를 둘러싼 한 · 일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됨.

- 일본정부는 「신성장전략」 및 「산업구조비전 2010」(6월 1일 발표)에서 인프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포함함.

○ 이 비전과 전략을 통해 일본은 산업구조의 방향성 전환(고기능·단품판매형 산업 → 시스템판매형/과제해결형/문화부가가치형 산업),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도모

- 또한 일본정부는 2010년 3월 중순 자국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업무를 확대

○ 3월 말에는 아세안, 중국, 인도를 아우르는 광역 인프라 정비계획인 아시아종합개발계획(2,000억 달러 규모)을 발표

-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선점 노력 및 한 · 일기업 공동진출 모색 등을 지원할 필요

■ 당분간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축소된 대일무역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

- 2009년에는 양국간 무역액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대일무역 적자도 감소되었으나 2010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대일교역액: 2008년 892억 달러 → 2009년 712억 달러
▸ 대일무역적자: 2008년 327억 달러 → 2009년 277억 달러 → 2010년(1~4월) 123억 달러

표 4.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9년				2010년
	1~3월	4~6월	7~9월	9~12월	1~4월
대일 수출	-33.8	-33.6	-30.5	-24.9	28.1
대일 수입	-32.0	-30.7	-28.2	-22.0	38.4

자료: 한국무역협회.

- 따라서 대일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장단기 전략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품차별화와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중국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일본업체를 지속적으로 인수함(2009년 인수액은 285억 엔으로 전년대비 4배 증가).

연구진

* 국번: (02) 3460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1069)

3. EU

가. 최근 경제 동향

■ 2009년 3/4분기부터 시작된 EU 경제의 회복세는 2010년 1/4분기에도 이어짐.

- 플러스 성장은 특히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함.

- 2009년 3/4분기에 전기대비 0.3%의 성장을 기록한 EU 경제는 이후 2분기 연속 0.2% 성장을 기록하며 2010년 1/4분기에 경제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냄.

표 1. EU 및 주요 회원국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3/4	4/4	1/4	2/4	3/4	4/4	1/4
EU 27	−0.5 (0.9)	−1.9 (−1.6)	−2.5 (−5.3)	−0.2 (−5.7)	0.3 (−4.1)	0.2 (−1.9)	0.2 (0.6)
유로지역	−0.5 (0.6)	−1.9 (−1.9)	−2.5 (−5.3)	−0.1 (−5.6)	0.4 (−3.9)	0.1 (−1.7)	0.2 (0.8)
독 일	−0.3 (1.4)	−2.4 (−1.7)	−3.5 (−6.4)	0.4 (−7.0)	0.7 (−4.7)	0.2 (−1.5)	0.2 (1.7)
프랑스	−0.2 (0.2)	−1.6 (−2.0)	−1.5 (−3.7)	0.2 (−3.8)	0.3 (−2.5)	0.6 (−0.6)	0.1 (1.2)
영 국	−0.9 (0.6)	−1.8 (−1.3)	−2.6 (−5.5)	−0.7 (−6.5)	−0.3 (−4.7)	0.4 (−2.9)	0.3 (NA)
PIIGS							
그리스	0.1 (2.0)	−0.7 (0.7)	−1.0 (−1.0)	−0.3 (−1.9)	−0.5 (−2.4)	−0.8 (−2.5)	−1.0 (−2.5)
스페인	−0.6 (0.9)	−1.1 (−0.9)	−1.7 (−3.8)	−1.0 (−4.8)	−0.3 (−3.8)	−0.1 (−2.2)	0.1 (−1.2)
포르투갈	−0.7 (0.4)	−1.4 (−1.9)	−1.8 (−4.1)	0.7 (−3.0)	0.2 (−2.5)	−0.1 (−0.9)	1.1 (1.7)
이탈리아	−1.1 (−1.4)	−2.0 (−3.3)	−2.9 (−6.9)	−0.3 (−6.5)	0.4 (−4.1)	−0.1 (−2.6)	0.4 (0.8)
아일랜드	−0.3 (−1.3)	−4.8 (−9.3)	−2.5 (−9.2)	−0.3 (−7.8)	−0.2 (−7.4)	−2.7 (−5.8)	2.7 (−0.7)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기준이며, ( ) 안은 전년동기대비, 비계절조정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도 차츰 호전됨.

- 독일, 프랑스는 2009년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영국도 4/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과반 수 이상의 EU 회원국들이 경기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PIIGS)들은 2009년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리스를 제외한 PIIGS 국가들은 2010년 1/4분기 들어 경기침체를 벗어남.

■ 2010년 2월 이후 물가상승률은 다소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2008년 7월 EU와 유로지역에서 각각 4.4%와 4.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09년 5월 이후 EU는 1% 이하, 유로지역은 0% 이하로 떨어진 바 있음.

- 2010년 5월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6%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이 제시한 '2%에 가깝지만 낮은 정도'의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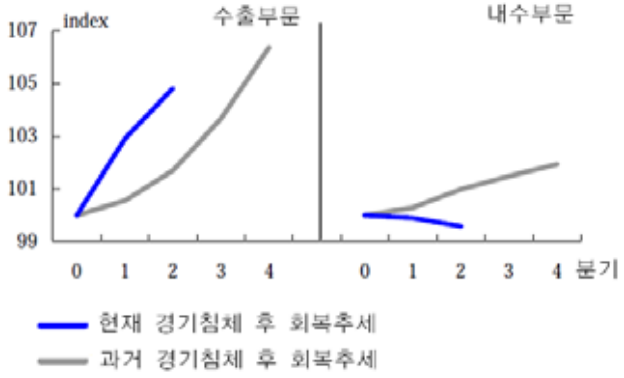
■ 독일, 프랑스 등 제조업 수출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역외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대로 이루어지던 경기회복에 역내 수요 확대가 추가되어 시너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9년 3/4분기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 유로지역의 수출은 2010년 3월 전월대비 8.0%의 최고조 성장을 보였다가 2010년 4월에 전월대비 −2.5%를 기록함.

○ 비록 등락폭이 있었으나 유로지역은 2010년 4월 15.6억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함.

○ 교역상대국의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과 유로화의 약세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출이 유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다른 경기침체 시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그림 1.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이후의 회복추세



자료: EU 집행위원회.

- 플러스 경제성장은 역내 수요의 침체 속에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중 무역적자의 감소,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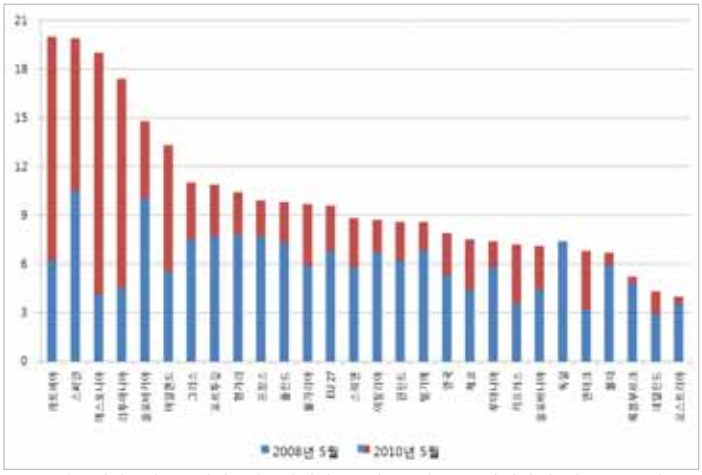
○ 점진적 회복 양상을 띠고 있는 EU 내수시장에서는 수입이 급등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역시 2010년 1월부터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음.

■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률도 다소 감소함.

- 2010년 5월 EU의 실업자 수는 2,313만 명으로 4월에 EU 27개국 공동 집계 최고치를 기록한 후 3만 7,000명 정도 감소했음.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8년 3월의 실업자 수 1,595만 명에 비해 약 45% 증가한 수준임.

- 2009년 3분기에는 평균 9%를 넘어섰던 실업률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으나 2010년 4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후 다소 감소하여 5월에는 EU와 유로지역에서 각각 9.6%와 10%를 기록함.

그림 2. EU 실업률 현황



주: 1)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영국, 루마니아의 경우 2010년 3월 통계임.
주: 2) 2008년 5월에서 2010년 5월 사이 독일의 실업률은 7.4%에서 7.0%로 감소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증가함.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스페인(19.9%), 아일랜드(13.3%), 그리스(11.0%), 포르투갈(10.9%)은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반면 네덜란드(4.3%), 오스트리아(4.0%), 덴마크(6.8%), 독일(7.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3)]

- EU 및 유로지역의 청년실업률[4)]은 2010년 1/4분기에 각각 20.7%, 20.2%의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다소 주춤해짐.

그림 3. EU 및 유로지역의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0%로 유지함.

- ECB는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9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1.0%로 유지함.

○ ECB는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임.

- 영란은행은 2007년 7월 기준금리를 5.75%로 설정한 이후 2009년 5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0.5%로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의 CPI[5)]는 2010년 4월 전년대비 3.7% 상승으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되나, 최근의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1년 초까지 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Global Insight).

○ 본격적인 금리인상은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그리스 위기사태는 남유럽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로지역과 IMF의 공동지원이 발표되었으나 유로지역 경제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2009년 12월 이후 신용평가기관들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남유럽發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음.

○ 2010년 4월 27일 S&P는 유로지역과 IMF의 그리스 지원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3단계 하향조정함으로써, 유로지역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투자부적격 사례가 나타남.

3) 그리스는 2010년 3월 실업률이며 그 외의 국가는 2010년 5월 실업률임.

4) 15~24세 기준.

5) 2005=100 기준.

- 유로지역과 IMF는 경제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리스에 대해 향후 3년간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합의함(2010년 5월 2일).[6)]

- 많은 EU 회원국들이 재정감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향후 3년간 300억 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재정건정성의 확보를 위해 유사한 재정감축안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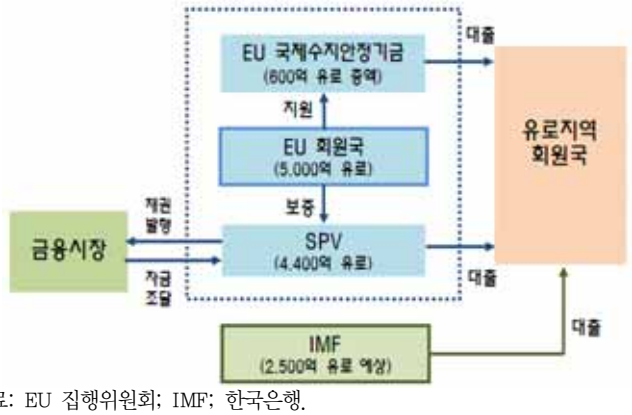
- 5월 10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조치로 5,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 메커니즘은 유로지역 국가들이 채무보증 및 상호 차관을 통해 4,400억 유로를 마련하며, 기존의 국제수지균형기금(기존 500억 유로 규모)을 600억 유로 증액하여 구성함.

○ IMF로부터 예상되는 지원액을 포함할 경우 EU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은 총 7,200억~7,500억 유로 규모에 이를 전망임.

그림 4. 유럽 금융안정메커니즘의 구조[7)]

(2010년 5월 10일 발표)



자료: EU 집행위원회; IMF; 한국은행.

■ 유럽 주요국들은 경기침체의 우려에도 불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감축안을 발표, 준비 중임.

- 독일 정부는 6월 8일 800억 유로의 재정감축안을 발표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6월 12일 향후 3년 동안 1,000억 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함.

○ 독일 정부는 국내외 반대여론에도 불구, 공무원 및 군 병력 축소, 사회보장지출 감소 등을 통해 2014년까지 800억 유로의 재정감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또한 향후 3년 동안 450억 유로의 공공지출 삭감, 550억 유로의 세수확보 계획을 세움.

- 지난 5월에 출범한 영국의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6월 22일 GDP 대비 10.1%에 달하는 재정적자 수준을 2015년까지 1.1%로 줄이기 위한 5개년 긴축재정안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정부부서 예산 감축(최고 25%) 및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110억 파운드 감축)를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적자 감축의 77%를 재정지출의 감소로 이룰 것임을 밝힘.

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10년 하반기에 EU 경제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됨.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의 증가가 EU의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 EU와 유로지역은 각각 1.0%와 0.9%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화의 약세는 유로지역의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세는 프랑스(1.3%), 독일(1.2%), 영국(1.2%) 등 EU 내의 대형국가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슬로바키아(2.7%), 폴란드(2.7%), 체코(2.6%) 등의 일부 동유럽 국가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0%), 아일랜드(-0.9%), 스페인(-0.4%)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초 동유럽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는 라트비아(-3.5%), 리투아니아(-0.6%)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와 투자부진, 높은 실업률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GDP의 57%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수요확대가 추가적인 경기회복의 관건이나 2010년 민간수요의 증가는 EU에서는 0.1% 증가에 그치고 유로지역에서는 제자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6)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지역 국가가 800억 유로를 5% 금리의 양자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IMF는 300억 유로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함.

7) 유럽 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는 유로지역 회원국 정부가 ECB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채무보증을 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으로부터 재원 조달을 담당함.

- 2010년 EU와 유로지역의 총투자는 각각 2.2%,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투자 감소는 경제위기 전 EU 기업들(특히 남유럽 기업)의 채무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 EU 지역의 설비가동률이 낮다는 점, 기업의 위험회피성향의 증대 등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경기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정부수요가 재정건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이미 높은 실업률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부문별 성장률

(단위: %)

구 분	EU 27				유로지역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GDP	0.7	-4.2	1.0	1.7	0.6	-4.1	0.9	1.5
민간소비	0.8	-1.7	0.1	1.3	0.4	-1.1	0.0	1.1
정부소비	2.3	2.2	1.0	0.1	2.1	2.3	0.9	0.3
총 투 자	-0.6	-11.5	-2.2	2.5	-0.6	-10.8	-2.6	1.8
인플레이션	3.7	1.0	1.8	1.7	3.3	0.3	1.5	1.7
실업률	7.0	8.9	9.8	9.7	7.5	9.4	10.3	10.4
재정적자	-2.3	-6.8	-7.2	-6.5	-2.0	-6.3	-6.6	-6.1
국가채무	61.6	73.6	79.6	83.8	69.4	78.7	84.7	88.5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내수	0.8	-3.0	-0.1	1.2	0.5	-2.5	-0.3	1.0
재고	-0.1	-1.1	0.5	0.2	0.1	-0.8	0.4	0.1
무역수지	0.1	-0.1	0.6	0.3	0.0	-0.7	0.8	0.4

주: 2010년,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선행지수가 2010년 5월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여 최근의 시장심리를 반영함.

- 2009년 3월 60.4와 64.6로 유로화 도입 이후 최저로 떨어졌던 EU 및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는 2010년 4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졌으나 2010년 5월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후 6월에는 제자리 수준에 머뭄.

그림 5. EU와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

주: 1990~2009년 기간의 경기체감지수 평균점을 100이라고 가정함.
자료: EU 집행위원회.

- 유로지역 PMI 지수 또한 2010년 4월 경제위기 이후로서는 최고치인 57.3을 기록한 후 5월과 6월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며 56.0을 기록함(Markit Economics).

○ PMI 지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로지역 주요국에서 경제위기 이후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다가 5월에 첫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하락 원인으로는 국내수요의 침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부진이 지적됨.

- 최근 갑작스러운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함.

■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그리스 위기사태는 단일국가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과 주요국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일단 단기적인 위기는 넘긴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국가들의 높은 국가채무 수준 및 낮은 수출경쟁력,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임.

○ 남유럽국가들이 계획 중인 재정 감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수출촉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부각됨.

-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외채 대부분을 서유럽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 유럽의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요인은 계속 상존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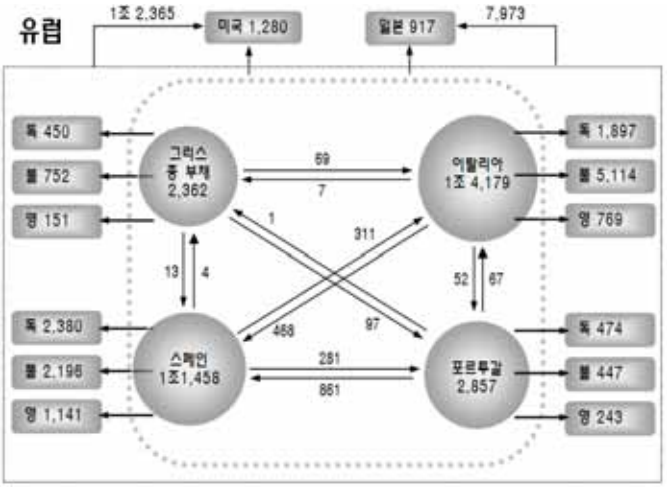
○ 외국계 은행들이 그리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2,362억 달러의 외채 중 유럽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채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위기 시 유럽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됨(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도 각각 84.2%와 74.3%로 높음. 2009년 말 BIS).

- 남유럽국가들의 신용불안이 동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불거진 헝가리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은 리스크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리스크 요인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위기설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올 하반기 국채상환 물량의 45.5%(320억 유로 규모)가 7월에 몰려 있어 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6. 유럽의 역내 부채 연결망

(단위: 1억 달러)



주: 1) 2009년 말 기준.
2) 화살표는 채무의 방향, 숫자는 채무규모(단위: 1억 달러)를 나타냄.
자료: BIS(2009)

■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오던 유럽통화기금(EMF: European Monetary Fund)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EU 차원의 금융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5월 11일에 발표된 재정안정 메커니즘은 실질적으로 EMF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회원국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MF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8)]

- 현재 EU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과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9)]를 신설하여 EU 금융시장의 거시·미시 건전성을 감시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 중임.[10)]

다. 한·EU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유로화 약세와 유로지역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EU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23.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2의 교역대상국임(12.8%).

- 2010년 5월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유로화의 약세와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EU 지역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함.

○ 2010년 4월 중국,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EU로의 수출은 8.5% 증가에 그침.

표 3.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

	2009년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0년 4월
중국	-5.1	98.2	43.1	50.9	42.6
미국	-18.8	16.4	24.4	38.7	32.7
일본	-22.9	22.7	27.9	36.3	33.1
EU	-20.2	11.6	9.0	20.6	8.5

자료: 관세청.

■ 한·EU FTA의 발효 시 EU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6월 23일 유럽의회의 통상위원회는 한·EU FTA의 관세환급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조건을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EU FTA의 발효가 한층 더 가시화됨.[11)]

- 한·EU FTA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경쟁력 약화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재 14%에 불과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알 수 있듯이 한·EU FTA 발효 시 즉각적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원산지 관련 정보교육의 강화 및 수출 관련 행정 간소화 등의 조치가 보완될 수 있음.

- 유로화의 약세는 투자를 통해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함.

■ 남유럽 경제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서유럽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PIIGS 국가들은 국내 외국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중 1%를 차지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익스포저 중 4.8%, 우리나

8) Wolfgang Schäuble(Welt am Sonntag 2010. 3. 7).

9) 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10) 현재 Michel Barnier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추진 중인 본 은행세의 도입은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내부조율을 마친 후 G20의 의제로 추진할 계획임.

11) 리스본 조약발효(2009년 12월) 이후 유럽의회는 무역협정에 관한 비준동의권을 갖게 되었음. 이번 결정은 유럽의회가 새로운 권한을 활용하여 무역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내린 첫 번째 결정임. 본 결정은 향후 유럽의회의 한·EU FTA 비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짐.

라 전체 교역 중 2%를 차지하는 데 불과함.

-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총외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서유럽 금융기관들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해 외부發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진

* 국번: (02) 3460

강유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1123)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1226)

II. 신흥시장국

1. 중국

가.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세 지속

- 중국경제는 2010년 1/4분기 11.9%(2007년 4/4분기 이후 최고치)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09년 2/4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내수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도시고정자산투자는 2009년에 이어 2010년 1/4분기에도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 최근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함으로써 소비 역시 중국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함.

표 1. 중국경제 3대 수요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단위: %포인트)

	최종소비	자본형성(투자)	순수출
2008년	4.2	4.6	0.8
2009년	4.6	8.2	-4.1
2010년 1/4	6.2	6.9	-1.2

자료: 중국통계적요 2010; Global Insight.

■ 최근 산업생산 및 도시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

- 2009년 1/4분기 이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 및 도시고정자산투자가 2010년 3월 이후 둔화조짐을 보임.

○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0년 3월 18.1%를 기록한 이후 4월과 5월에 각각 17.8%, 16.5%로 2개월 연속 떨어짐.

○ 도시고정자산투자는 2월 26.6%의 증가율을 보인 이후 3월 26.4%, 4월 26.1%, 5월 25.9%로 소폭 둔화세를 지속

■ 수출 증가세 견조

- 2009년 12월 증가세로 전환한 수출은 2010년 1/4분기 28.7%의 증가율을 보이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세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입이 더 큰 폭(64.6%)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76.7% 감소한 145억 달러에 그침.[12)]

- 중국 수출은 2010년 4월 30.5% 증가한 데 이어 5월에는 48.5%(2003년 12월 이후 최고치)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함.

■ 물가는 점진적 상승세

- CPI는 2009년 1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1/4분기 2.2%의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0.7%)에 비해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5월 CPI는 식품가격의 상승에 의해 3.1%까지 상승하였으나, 1~5월 상승률은 2.5%로 2010년 정부 목표치인 3% 상승률을 밑돌고 있음.

표 2.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연간	2/4	3/4	4/4	1/4	4월	5월
GDP	9.1	7.9	9.1	10.7	11.9	-	-
산업생산	11.0	9.2	12.4	18.0	19.6	17.8	16.5
소매판매	15.5	15.0	15.4	16.9	17.9	18.5	18.7
도시고정자산투자	30.5	33.6	33.3	30.5	26.4	26.1	25.9
수출	-15.9	-23.5	-20.7	0.2	28.7	30.5	48.5
수입	-11.2	-20.2	-10.2	22.3	64.6	49.7	48.3
CPI	-0.7	-1.5	-1.3	0.6	2.2	2.8	3.1
총통화(M2)	27.7	28.5	29.3	27.7	22.5	21.5	21.0

자료: CEIC; Global Insight; 한국은행.

■ 구매자관리지수,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 최근 산업생산 및 도시고정자산투자가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경기지표인 구매자관리지수(PMI)와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경제 하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PMI는 2008년 11월 38.8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53.9에서 6월 52.1로 떨어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12) 2010년 3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2004년 4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적자(7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의 둔화로 4월 중 다시 흑자(16억 8,000만 달러)로 반전됨.

○ 경기선행지수 역시 5월 103.4를 기록하여 2010년 3월부터 둔화세를 지속함.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중국경제는 2010년 전체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내수확대, 수출회복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수출이 2009년 4/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0년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8%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10%에 육박하는 성장률 기록도 가능할 전망임.

- 주요 전망기관들은 중국경제의 2010년 성장률을 9.5~11.1%로 전망하고 있음.

표 3. 주요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2010년	2011년
Global Insight	10.9	8.6
EIU	9.9	8.3
WB	9.5	8.5
OECD	11.1	9.7
IMF	10.0	9.9

자료: Global Insight, *Monthly Outlook*(2010.7); EIU, *ViewsWire*(2010.6);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2010.6); OECD, *Economic Outlook*(2010.5);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20010.4).

■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2010년 중국정부의 자산시장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운용과 주요 경제지표의 기저효과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세는 1/4분기 이후 점차 둔화될 전망임.

※ Global Insight(7.1)의 2010년 중국경제 분기별 성장률 전망: 1/4분기 11.9%(실제치) → 2/4분기 11.2% → 3/4분기 10.5% → 4/4분기 10.2%

■ 금융 및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 시행

- 최근 중국 내 신용대출 팽창과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중국정부는 유동성 조절 및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2010년 1~5월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4조 100억 위안으로 이미 2010년 목표치인 7.5조 위안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임.

○ 70대 도시 부동산 가격은 3월 중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는 12.8%로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자산버블 우려가 커짐.

표 4. 최근 중국정부의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지급준비율 인상	-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1월 12일, 2월 12일, 5월 2일 세차례에 걸쳐 각각 0.5%포인트 지급준비율을 인상함. - 이에 따라 대형은행의 지준율은 17%, 중소형은행의 지준율은 15%로 상향 조정됨.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시장가격 안정 조치(2010.4.17)	- 주거용지 공급확대(2009년보다 2배 이상 증가 계획) - 두 번째 주택구입시 선납 계약금 비율 상향조정(40% → 50%) - 3주택 이상 구입 대출 제한 - 부동산시장 감독 강화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속에 출구전략 시행은 신중

- 중국정부는 세계경제가 아직 부분적으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방식 전환을 가속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중국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산시장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유동성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총통화증가율 하향조정과 신규대출 규모 축소관리 등의 미세조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외경제 여건이 아직 불확실하며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아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을 기할 것임.

■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6월 19일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진일보 개혁하여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인민은행은 향후 위안화 환율 결정에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다 더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이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월 18일 6.8275에서 7월 5일 6.7733(중국인민은행 기준환율 기준)으로 약 0.8% 절상됨.

- 그러나 급격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

상되는 바, 대체로 2010년 말까지 약 3% 정도의 완만한 절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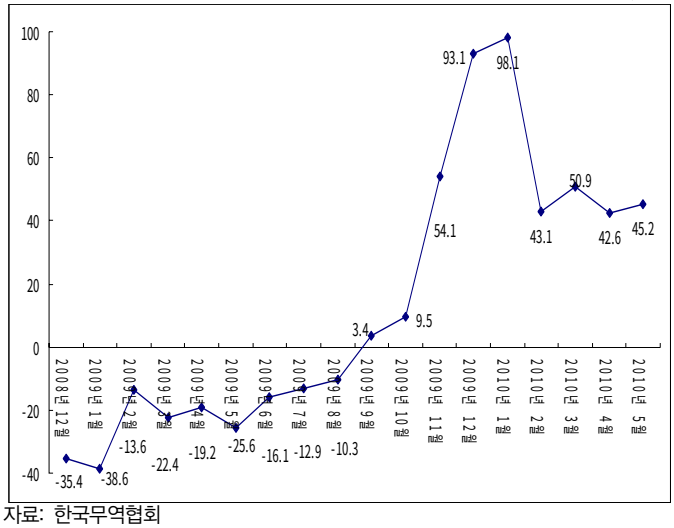
다.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세 지속

-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과 수출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09년 9월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2010년 5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13)]

그림 1.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중 수출을 주도한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으로, 대중국 부품 및 소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1~5월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53.1%, 33.6% 증가하였으며, 대중 무역흑자는 90억 달러 늘어난 186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 하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

- 201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상반기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될 수 있음.

○ 또한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중국경제의 회복과 내수 확대에 따른 대중국 시장진출 전략 수립

-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1인당 GDP 3,000달러 시대에 진입함.

- 이에 따라 내수시장 성장, 소비 대중화, 서비스 수요 확대, 도시화, 환경 및 신에너지 수요 증가 등 신산업의 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대중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 한·중 FTA 협상 대비 전략 마련

-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 기간 중(2010년 5월 28~30일) 양국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양국간 FTA 체결 협상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한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0년 6월 29일 중국-대만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14)] 세계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부진 가능성 등 중국의 대외시장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중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연구진

* 국번: (02) 3460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1086)

13)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대부분 중간재(부품·소재) 위주(2009년 기준 71%)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증가 → 중국의 중간재 수입확대 →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로 이어짐.

14) 중국과 대만은 ECFA 체결을 통해 총 806개 품목(대만 539개, 중국 267개)을 조기자유화 프로그램(EHP)에 포함시키고, 이들 품목에 대해 2년 내 3단계에 걸쳐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서비스부문에서도 총 20개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합의함.

2. 인도

가. 최근 경제 동향

■ 고성장궤도에 안착한 인도경제, 인플레 방어에 주력함.

- 2009년도(2009년 4월~2010년 3월) 인도경제는 농업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6.7%)대비 7.4% 성장함.

○ 2009년 1/4분기(2009년 1~3월)를 기점으로 V자형 회복세 시현에 이어, 2010년 3월 조기출구전략을 시동한 인도경제는 2010년 1/4분기 8.6%의 성장률을 달성,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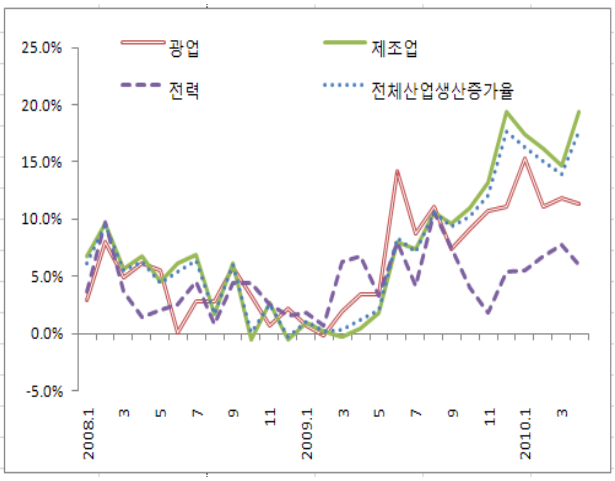
- 이는 인도 정부의 신속한 경기방어정책과 기업 및 국민들의 투자 및 소비 수요의 조기회복 결과로 인도경기는 물론 세계경기 회복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광공업생산, 소매판매도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인도경제의 회복은 내수가 주도함.

- 2009년 2/4분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인도의 광공업생산지수(IIP)는 4/4분기부터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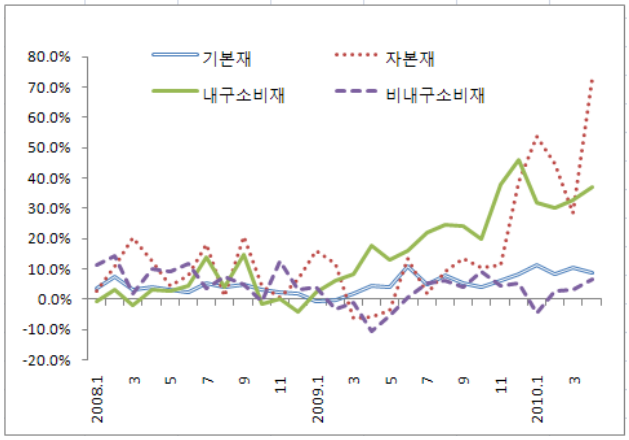
- 특히 2010년 3월 내구소비재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기계류를 제외한 금속제품 및 부품이 42.8%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하였음.

그림 1. 최근 업종별 산업생산 추이



자료: CEIC.

그림 2. 제조업 부문별 산업생산 추이



자료: CEIC.

■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됨.

- 수출은 2009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5%로 소폭 확대되었음(2008년 -2.4%).

■ 물가상승 압력 증대로 출구전략이 가속화됨.

- 2009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물가는 2010년 1/4분기 15.3%로 지난 1998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식료품은 전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18%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소비 회복과 공산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쳐 인플레 압력이 가중됨.

- 가파른 물가상승과 경기회복 가속화 전망 등으로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1월 지급준비율을 0.7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7월 2일까지 기준금리인 Repo rate과 Reverse repo rate을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상(Repo: 5.50%, Reverse repo: 4.0%)

■ 조정국면에 접어든 금융시장

- 2008년 하반기(11월: 9,092)에 연초(1월: 17,648)대비 절반 가까운 폭락을 경험한 인도 주식시장은 2009년 9월 17,000 선대를 회복한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유지함.

○ 이에 한국에서 운용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인도 투자 펀드는 올 상반기 연초대비 8.8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중국 -11.03%, 북미 -10.63%, 브라질 -10.42% 등).

- 2009년 3월 달러당 51.2루피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같은 해 10월부터 반전, 2010년 3월에는 45.5루피로 하락하였지만 연속되는 유럽발 금융불안으로 7월 현재 47루피대를 기록하고 있음.

표 1. 최근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GDP	4.0	6.1	6.8	5.9	8.6
산업생산	0.5	3.8	9.0	13.4	15.1
물가상승률	9.4	8.9	11.8	13.3	15.3
경상수지 (억 달러)	-12	-63	-12	-12	-13
재정수지 (억 달러)	-11	-12	-7	-11	-
BSE Sensex	-37.9	-7.7	33.2	81.0	80.5
환율 (Rs: US$)	50.9	47.9	48.0	46.7	45.1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Monthly Review of the Indian Economy*; 인도중앙은행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8%대의 고성장 시현이 기대됨.

- 정부의 친시장적 경제정책, 해외자본 유입증가에 따른 투자증가 및 기후 여건 호전에 따른 농업생산 회복 전망 등으로,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됨.

○ 집권 UPA(통일진보연합)가 총선에 압승한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 소매·유통업 및 군수산업 부문에 대한 FDI 개방 확대, 광대역 무선주파수 경매 등 외국인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하반기부터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또한 7월 초부터 시작된 몬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GDP중 17%, 총 인구 중 60%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부문에서 5.9%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재정정책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부분 2010년과 2011년 인도경제의 성장률을 8%대로 전망하고 있음.

○ 향후 정책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인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므로, 소비 및 투자 위축과 같은 출구전략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표 2 . 주요기관의 인도 경제전망

(단위: %)

	2010년도	2011년도
IMF	8.75	8.5
Global Insight	8.1	8.2
OECD	8.3	8.5
EIU	7.8	8.0
World Bank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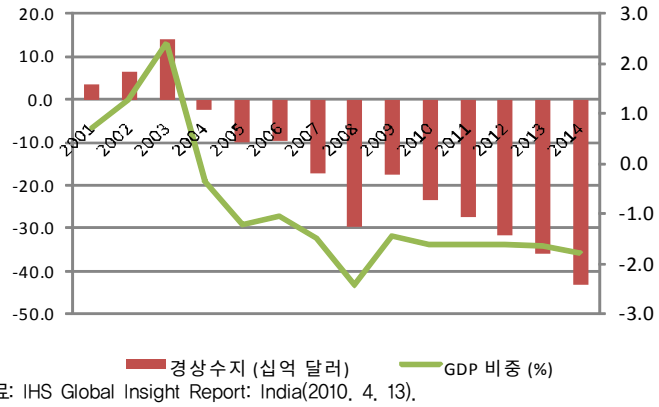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balancing Growth*(2010. 4); Global Insight, Monthly Outlook(2010. 6); OECD, Economic Outlook(2010. 5); EIU, Country Report(2010. 6); World Bank, *South Asia Economic Update 2010*(2010. 6. Advance Edition).

■ 한편 루피화 강세 및 내수 증가 등으로 향후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DP대비 경상적자의 비중은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는 유가가 배럴당 약 83.5달러로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 2014년까지 GDP의 2.0%를 넘지는 않을 전망임.

○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를 필두로 한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흑자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의 적자를 보전하여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임.

그림 3. 인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 IHS Global Insight Report: India(2010. 4. 13).

다. 한·인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인플레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 등 금융시장의 단기변동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최근 남유럽 및 동유럽에서 촉발된 금융 불안도 인도 자금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음.

■ 인도경제가 고성장 궤도에 재진입하고 시장개방 및 민영화 정책 등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협력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인도시장을 둘러싼 경쟁 심화가 예상됨.

- 일본, EU 등은 올해 중에 인도와 추진 중인 FT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며,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수록 구미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속도도 가속화될 것임.

○ 특히 일본정부는 최근 인도의 인프라 및 타운십 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국 기업의 진출활로를 개척하고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인도 최대산업(2008년 기준 3,300억 달러)이면서 아직까지 빗장이 닫혀있던 마지막 블루오션인 소매·유통 부문의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이미 월마트, 테스코 등 글로벌 유통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 2008년 인·미 핵 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인도의 민수용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향후 20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에서 주기기 및 시스템공급 수주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기 발효된 한·인도 CEPA를 발판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인도 진출 전략 등을 강구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인도 CEP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및 기업의 교육과 홍보 강화,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애로요인 적극 타개 등 CEP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과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FTA 체결 추이를 주시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연구진

* 국번: (02) 3460

최윤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1039)

3. 러시아

가.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모두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며, 실업률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 청신호를 나타냄.

- 2010년 1~5월 실질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0%, 10.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5월 들어 경기회복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기회복은 전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올해의 기저효과와 산업생산 증가, 수출증가 등에서 힘입은 바가 큼.

- 기업의 산업생산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0년 1월 9.2% → 2월~3월 8.6% → 4월 8.2%, 5월 7.3%를 기록함.

표 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1)]

	2009년			2010년		
	1/4 분기	4월	5월	1/4 분기	4월	5월
GDP(%)	-9.4	-10.7	-11.5	4.5	5.5	5.8
소비자물가[2)](%)	13.7	13.2	12.3	7.2	6.0	6.0
산업생산(%)	-14.3	-16.9	-14.5	3.2	10.4	12.6
고정자본투자(%)	-17.3	-20.9	-24.8	-4.7	2.3	5.5
실질가처분 득(%)	0.7	2.4	4.7	7.4	3.7	2.8
소매유통(%)	0.4	-4.3	-5.1	1.3	4.2	5.1
수출(십억 달러)	57.3	21.1	22.6	91.3	33.7	31.7
수입(십억 달러)	38.5	14.8	13.8	45.3	19.1	19.7
우랄산 평균유가 (배럴당 달러)	43.5	48.8	56.9	75.2	82.5	73.4
환율(달러당루블)[2)]	34.01	33.25	30.98	29.36	29.29	30.5

주: 1) 전년동월(동기)대비임, 2)중앙은행통계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중앙은행.

■ 3월 이후 고정자본투자가 증가됨. 그러나 완전한 투자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한파에 의한 건설부문 투자활동 저조 등으로 인해 2010년 1월 전년동월대비 8.7%의 감소를 보였던 고정자본투자가 3월에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 5월에는 5.5%를 기록함.

- 2009년 1~5월 무려 -20%를 나타냈던 고정자본투자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0.4%를 기록하며, 투자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여전히 높은 대출이자율과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완전한 투자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이 고시한 대출이자율은 경제위기가 극심했던 2009년 1월 17%에서 2010년 4월 11%대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15~30%로 매우 높은 상황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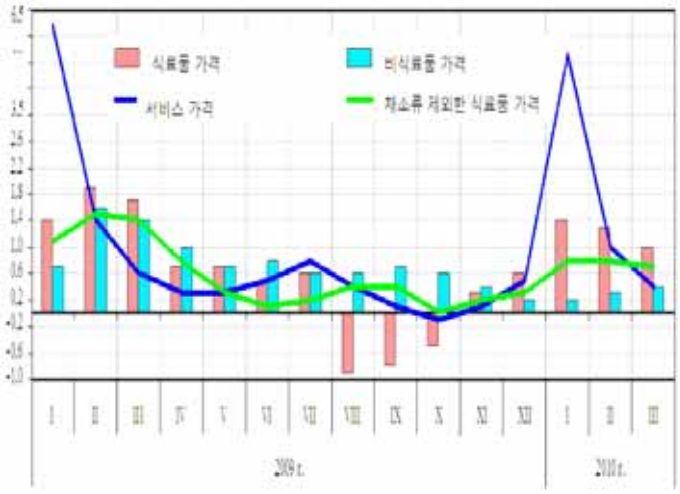
- 환율 안정, 수요 둔화 등으로 201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를 매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올해 초 공공요금 인상, 채소류 가격 상승 등 계절요인에 의해 전년 말 대비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3월 들어 채소류 가격 상승 둔화로 계속 안정되는 추세임.

○ 2010년 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0%로서 199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그림 1. 소비자물가 상승률 부문별 동향

(단위: 전월대비, %)



자료: 러시아경제개발부.

■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함.

-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대출 증대, 투자회복, 루블화 평가절하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초 8.75%에서 4차례 인하하여 6월 1일부터 7.75%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은행은 5월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어 통화당국의 개입 없이도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당분간 더 이상의 금리 인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발표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가 지속됨.

- 올해 1~5월간 교역량(수출 65%, 수입 35%)이 전년동기대비 43.3% 증가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금액은 1,563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5배 증가함.

○ 우랄산 국제유가는 올해 1~5월간 평균 배럴당 76.3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배 상승하였음.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10년 러시아 경제는 약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러시아 경제는 전년대비 국제유가 상승으로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남유럽발 금융위기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여파로 소비, 투자, 교역 등 모든 면에서 균형적인 회복세는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임.

- 러시아 정부는 우랄산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를 유지할 경우, 성장률은 3.1~4.0%를 기록할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우랄산 국제유가 전망에 기초하여 [표 2]와 같이 2010~11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유가 상승에 따라 2009년 말 전망치 기준 유가 범위를 재조정하여 발표함.

- 최근 세계은행은 2010년 하반기 이후, 가계소비 및 투자 회복과 2009년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2010년 러시아 경제가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3월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5.0~5.5%로 전망하였으나, 러시아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내수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6월 전망치에서는 다소 하향 조정함.

표 2. 2010~11년 국제유가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전망 변화

(단위: %)

	2010년		2011년	
	Ⅰ	Ⅱ	Ⅰ	Ⅲ
경제성장률	3.1~4.0	4.5	2.6~3.4	3.7
산업생산	1.9~2.7	3.0	2.5~3.2	3.7
고정자산투자	2.4~2.9	4.4	1.4~2.5	2.9
수출 (십 억 달러)	약 373	약 388	약 382	약 409
수입 (십 억 달러)	232~238	약 244	259~273	약 285

주: 연평균 우랄산 유가 배럴당 Ⅰ) 75 달러, Ⅱ) 79달러, Ⅲ)81달러인 경우.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 한 자릿수 물가상승률 유지와 루블화 강세가 전망됨.

- 비록 하반기 이후 가계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의 6~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증가에 의한 오일달러의 유입 증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해 루블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오일달러 유입으로 2010년에는 달러당 29~30루블, 2011년~12년에는 28루블까지 환율이 하락하며 루블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주요 기관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010년 4월 전망	5.6	-7.9	4.0	3.3
세계은행	2010년 6월 전망			4.5	4.8
Global Insight	2010년 6월 전망			3.7	4.1
EIU	2010년 7월 전망			4.8	4.0
러시아 경제개발부	2010년 6월 전망			3.1~4.5	2.6~3.7

자료: IMF; OECD; 세계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 2010년 하반기 이후 가계소비 회복, 기업 투자 다소 증대

- 2010년 하반기에는 가계소비가 회복되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며, 기업은 상반기에 재고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경상수지, 자본수지 모두 흑자 전망

- 유가 상승, 국제 원자재 수요 증대, 해외 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10년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모두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 580억 달러(GDP의 3.9%)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상품수입 증가로 인해 3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0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 재정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바, 해외 투자자본의 유입 증대로 자본수지는 2010년 310억 달러, 2011년 6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재정적자는 4~5% 수준으로 전망됨.

- 현재의 경제 회복세와 오일달러 유입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 적자보전을 감안하더라도 3월 초 기준 1.7조 루블(GDP의 3.8%) 규모인 예비기금으로 모든 재정적자의 보전이 가능하여 대외차입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연금기금 적자보전을 제외할 경우, 2010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3~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경기 회복에 대한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

- 2011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출구전략 실시 및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른 대외부문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다. 한·러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증가세, 무역수지는 적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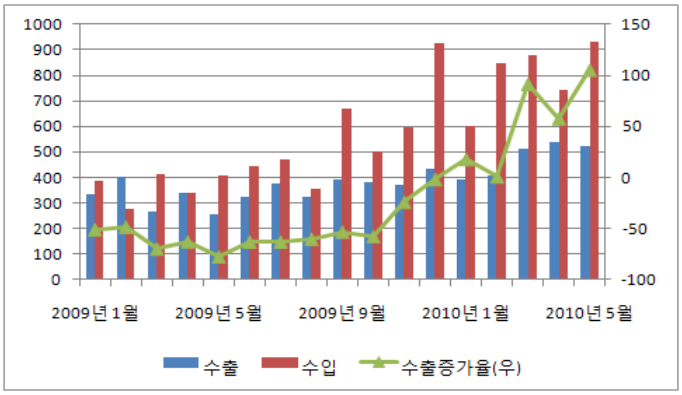
- 러시아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올해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대비 에너지자원 수입 증대로 한국의 대러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과 2010년 1~5월간 한국의 대러 수출입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러 수출 증가율은 2009년 -63.6% → 2010년 48.3%, 대러 수입 증가율은 2009년 -48.6% → 2010년 119.3%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 이후의 대러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의 대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에서 비롯됨.

그림 2.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주: 당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0년 하반기에도 한국의 대러 수출 증가세 지속 가능

- 올해 하반기에도 러시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특히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대러 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의 경기회복과 경제 현대화 정책, 극동개발 정책 실현에 따른 대러시아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러시아 정부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지속적인 경제 현대화 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사업인 나노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의 협력을 위해 러시아 나노공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동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2013년에 G20 정상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므로 한국은 이를 지지하고 에너지 개발정책을 포함한 한·러 양자간 협력을 제고하여, G20 틀 내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연구진

*국번: (02) 3460

이재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ljy@kiep.go.kr, Tel: 1089)

황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1095)

4. 브라질

가. 최근 경제 동향

■ 신속하고 강한 경기회복세 시현

- 브라질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경기침체를 기록했으나 2009년 2분기부터 신속한 성장세(전기대비)로 전환됨.

- 특히 2010년 1분기 브라질 경제는 투자 및 소비 급증에 힘입어 전기대비 2.7%, 전년동기대비 9.0% 성장을 달성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임.

○ 1분기 투자(총고정자본투자)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6% 급등하며 199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가계소비도 실업 감소(2009년 3월 9.0% → 2010년 4월 7.3%),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전년대비 7%), 가계 신용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며 빠른 경기회복세를 견인함.

○ 특히 3월 소매판매는 백색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종식을 앞두고 크게 증가, 2001년 이후 최고치(전년동월대비 13.7% 증가)를 기록함.

표 1. 브라질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1/4
전년동기대비	-2.1	-1.6	-1.2	4.3	-0.2	9.0
전기대비	-1.5	1.5	2.2	2.3		2.7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청(IBGE).

■ 산업생산도 지속적 증가세

- 신속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산업생산도 2009년 11월부터 플러스 성장세(전월대비 기준)로 전환, 2010년 들어서는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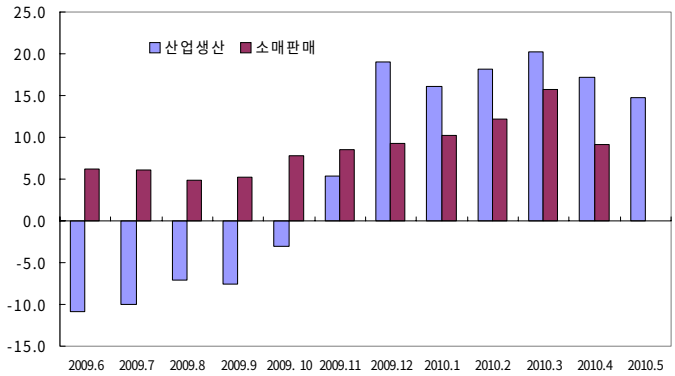
○ 특히 금년 1분기 산업생산은 제조업(17.2%), 건설업(14.9%), 광업(13.6%)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함.

- 4월 이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두 자릿수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월대비 기준으로 하락 내지는 정체를 보이며 성장 둔화 조짐을 보임.

○ 4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 하락한 데 이어, 5월 산업생산은 0% 성장에 그침.

그림 1. 브라질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청(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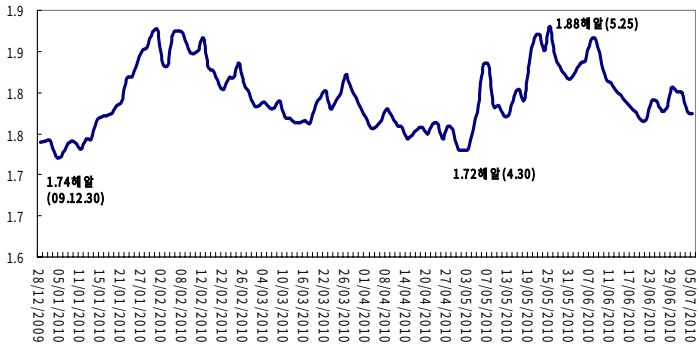
■ 남유럽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불안 지속

- 2009년 말까지 강세를 보이던 헤알-달러 환율은 2010년 들어 남유럽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며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임.

- 2010년 들어 헤알화 가치(달러대비)는 5월 20일 최저점(연초대비 8% 하락)까지 떨어졌다 다시 상승, 7월 5일 현재 연초대비 3%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2. 브라질의 환율 추이

(단위: 헤알/달러)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청(IBGE).

■ 경기과열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 내수 확대에 따른 경기과열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함에 따라 2010년 들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가중됨.

○ 금년 5월까지 12개월간 인플레이션은 5.22%로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치(4.5±2%)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물가수준(4.3%)을 크게 상회함.

■ 큰 폭의 수입 증가세로 무역흑자 폭 크게 감소

- 자동차 등 소비재 수입 급증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813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도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금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전년동기대비 26.5%, 892억 달러)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증가세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79억 달러 흑자에 그침.

■ 경기과열을 우려 출구전략 본격화

-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심해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함.

- 먼저 2010년 3월 브라질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한데 이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함(8.75% → 10.25%).

- 또한 브라질 정부는 5월 들어 57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함.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7%대 경제성장 전망

- 금년 브라질 경제는 소비확대 지속, 대규모 인프라 사업(성장촉진계획 PAC-2) 및 심해유전개발,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 기대감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7%대 성장을 달성할 전망임.

- 일부에서는 경기과열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간 견조한 소비를 견인해왔던 소비진작책의 종료, 기(旣)실시한 금리인상 효과와 정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2010년 하반기 브라질 경제의 과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임.

- 특히 2010년 4월을 기점으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경기과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한편,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여당 Dilma Rousseff, 야당 Jose Serra)의 경제정책이 시장친화적인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이점이 거의 없어 과거와 같이 정권 교체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표 2. 2010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

2010년 전망		세부 전망(중앙은행 전망치 기준)	
전망기간	전망치(%)	항목	전망치
IMF	5.5	소비자물가상승률(%)	5.55
		환율(헤알/달러, 연말기준)	1.80
EIU	7.8	기준금리(%, 연말)	12.13
Global Insight	6.1	산업생산 증가율(%)	11.91
		외국인직접투자(10억 달러)	35.00
중앙은행	7.2	무역수지(10억 달러)	15.72

자료: 브라질중앙은행(2010. 7. 2), IMF(2010. 4), EIU(2010. 6), Global Insight(2010. 6)

다. 한 · 브라질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브라질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對브라질 수출은 2010년 들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함.

○ 2010년 1~5월 대브라질 수출은 건설중장비(633%), 자동차부품(418%), 평판디스플레이(378%), 승용차(137%)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2.4%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함.

- 같은 기간 대브라질 수입은 주종 수입품인 철광의 수입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20.3% 감소한 13억 달러를 기록함.

- 결과적으로 2010년 1~5월 대브라질 무역수지는 2009년 같은 기간 13억 달러 적자에서 17억 달러로 반전됨.

- 브라질 연방세무국은 지난 6월 10일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응, 반덤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조사에 나섬.

■ 신규투자 진출 시 환경규제 등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라질 현지 경기침체로 주춤했던 우리 기업들의 대브라질 투자도 2010년 들어 본격화되고 있음.

○ 효성물산이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스판덱스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반도체 회사인 하나마이크론도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중임.

○ 그러나 5월 중순 착공 예정이던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생산공장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법률적 문제로 지연됨.

■ '브라질 특수'를 겨냥한 對브라질 진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소비시장의 급팽창, 월드컵 및 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 고속철도 · 원전건설 · 심해유전 개발 등 '브라질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진

*국번: (02) 3460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1081)

III. 개도국 경제권

1. ASEAN

가. 최근 경제 동향

■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ASEAN은 1.3%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

- ASEAN 내 GDP 성장률의 편차가 심하여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5% 내외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임.

■ 개방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GDP 대비 무역 비율은 각각 39.0%, 42.4%에 불과한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비율은 각각 146.1%, 289.7%, 108.0%임.

- GDP 대비 무역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의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됨.[15)]

■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ASEAN의 인플레이션은 예년보다 낮아서 10%를 하회함.

- GDP 성장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도 높은 경우가 많지만, ASEAN 국가 중에서도 GDP 성장률이 높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도 각각 2.8%, 8.5%, 6.9%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표 1. 2009년 ASEAN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단위: %)

국가	GDP 성장률	GDP 대비 무역 비율	인플레이션
브루나이	0.2	67.6	1.9
캄보디아	0.1	n.a.	5.3
인도네시아	4.5	39.0	2.8
라오스	4.6	n.a.	8.5
말레이시아	-1.7	146.1	1.1
미얀마	4.3	42.4	n.a.
필리핀	0.9	50.5	4.4
싱가포르	-2.0	289.7	-0.6
태국	-2.3	108.0	3.5
베트남	5.2	131.9	6.9
ASEAN	1.3	103.1	n.a.

주: GDP 성장률은 실질가격기준이고,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연말 소비자물가지수성장률로 측정함. n.a.는 자료부족을 뜻함.
자료: ASEANStat.

15) 그러나 이 두 수치 간 연관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필리핀의 GDP 대비 무역 비율은 50.5%이지만 GDP 성장률은 0.9%이고 베트남의 수치는 반대로 각각 131.9%와 5.2%임.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ASEAN 국가도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였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님.

- 대규모 적자재정을 집행한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각각 -4.6%, -4.4%, -3.9%임.

-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09년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8.74%에 비해서 ASEAN 국가의 수치는 크게 낮음.

- 대체로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2010년 초 ASEAN 국가의 GDP가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2010년의 GDP 대비 적자재정규모는 2007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2007~09년 ASEAN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브루나이	15.0	32.7	-0.4
캄보디아	0.6	0.1	2.4
인도네시아	-1.4	0.7	-0.6
라오스	-2.6	-0.4	n.a.
말레이시아	-3.2	-4.8	-2.8
미얀마	n.a.	n.a.	n.a.
필리핀	0.2	-0.9	-3.9
싱가포르	3.2	1.5	-0.3
태국	-1.7	-1.1	-4.4
베트남	-2.2	-2.1	-4.6

주: n.a.는 자료부족을 뜻함.
자료: ASEANStat.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10~11년 대부분의 ASEAN 국가는 5~6%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GDP 성장률도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ASEAN-5 국가[16)]에서는 수입의 빠른 증가로 순수출이

1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결과 내수가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대체로 2011년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2010년의 수치보다 약간 높아서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밝음.

표 3. 2010~11년 ASEAN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과 전망

(단위: %)

국가	2010년	2011년
브루나이	0.49	1.00
캄보디아	4.77	6.82
인도네시아	6.00	6.2
라오스	7.23	7.40
말레이시아	4.72	5.05
미얀마	5.26	5.02
필리핀	3.63	3.95
싱가포르	5.68	5.29
태국	5.52	5.48
베트남	6.04	6.53

주: GDP성장률은 실질가격기준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GDP 성장률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각각 7.70%, 9.00%, 12.5%일 것으로 전망됨.

-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집행된 재정지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2011년 ASEAN 인플레이션은 2010년의 수치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2010~11년 ASEAN 국가의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

국가	2010년	2011년
브루나이	n.a.	n.a.
캄보디아	7.51	5.22
인도네시아	5.75	5.33
라오스	7.70	6.25
말레이시아	2.00	2.10
미얀마	9.00	9.25
필리핀	4.49	4.00
싱가포르	2.27	1.33
태국	2.74	2.03
베트남	12.5	8.00

주: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연말 소비자물가지수성장률로 측정함. n.a.는 자료부족을 뜻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민간투자환경개선과 환율 유연화는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환경개선을 통하여 투자증가, 생산성 향상, 물가하락, 실질소득 상승의 순순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환율을 유연화하여 일반적으로 평가절하된 통화가치의 상승을 유도한다면, 수입품 가격하락, 가계구매력 상승, 수출품에서 내수용품으로의 자원이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2009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단, 팽창 통화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출구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실제로 2008년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23%에 달하였기 때문에 출구정책 실패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우려가 아님.

■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인도네시아는 2010~11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단, 세계유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류보조금을 통하여 국내 유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재정적자심화,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심화의 우려가 있음.

- 현재 주변국에 비해서 열악한 수준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은 한계를 보일 것임.

다. 한 · ASEAN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2010~11년 ASEAN GDP 성장률이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우리나라와 ASEAN 간 교역 규모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 또는 그 수준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6월 한 · ASEAN 자유무역협정이 완료되면서 우리나라와 ASEAN 간 무역 및 투자의 기회가 확대됨.

■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와 현재 무역 및 투자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진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IMF가 전망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GDP 성장률도 약 6%로 높음.

- 단, 2010년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적지만 베트남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됨.

연구진

* 국번: (02) 3460

손기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ksohn@kiep.go.kr, Tel: 1220)

2 중동

가. 최근 경제 동향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회복

- 세계경제가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중동 주요 산유국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은 석유가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석유 판매 수익이 총 GDP 대비 5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지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라 유가가 급락하고 생산량이 줄어 2009년 중동 주요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8%에 불과했음.

○ 하지만 2010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77달러로 2009년 연평균 대비 약 26% 상승해 중동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금융시장의 부분적 안정세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각 정부가 펼친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금융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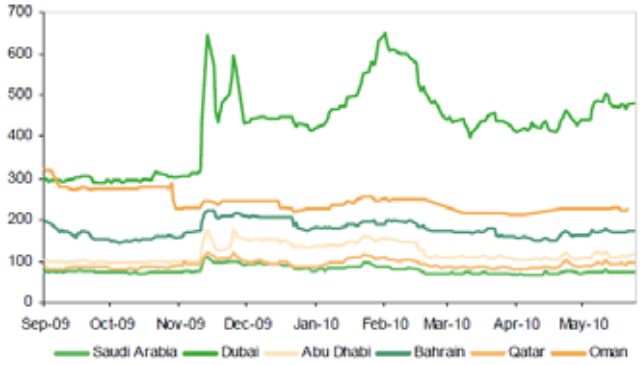
○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걸프지역 정부들이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증, 긴급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금 확충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한 후, CDS 가산금리와 은행간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점차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음.

- 하지만 채무불이행 및 부실채권 발생 우려로 인한 은행들의 위험 회피적 태도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의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거대 재벌의 몰락과 쿠웨이트 투자그룹의 부도, 두바이월드 사태(2009. 11)에 이어 지난 5월 두바이 홀딩스(자회사 DIC)의 13억 달러 규모의 채무상환 만기연장 등으로 역내 은행들은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더불어 유로존 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2010년 2월 한때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CDS 프리미엄이 각각 600bp, 97bp 등으로 급증하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그림 1. 중동 주요국 CDS 프리미엄 증가[17]



- 특히 두바이의 경우 여전히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과 부동산 부문이 전체 은행 대출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 가스 부문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 체결 급증

-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중동 주요 산유국은 전년동기보다 15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약 460억 달러 규모의 석유·가스 부문 EPC 신규 계약을 체결함.

○ 과거의 계약에 비해 입찰가는 10~40%까지 하락했으나 총 계약 수가 늘어났음.

○ 임금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전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건설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각 입찰자의 채산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음.

- 과거에는 미국이 프로젝트 시장의 최대 수주국이었으나,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한국이 총 발주액의 38%인 17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수주국이 되었음.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성장률 회복 전망

-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중동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IMF(2010. 5)와 세계은행(2010. 6)은 2010년 중동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을 각각 4.2%와 4.0%로 전망하였는데,

17) Exhibit 15, p12. GCC Economic Monthly(June 2010), NCB Capital

이는 2009년 성장률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상승한 수치임.

-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GCC[18] 등 산유국들의 경제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2009년 0.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GCC는 2010년 4.9%, 2011년에는 5.2%의 경제성장 전망[19](IMF 2010. 5).

표 1. 중동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항목	2010년		2011년	
발표기관	IMF	세계은행	IMF	세계은행
성장률	4.2	4.0	4.6	4.3

자료: IMF(2010. 5); 세계은행(2010. 6).

■ 부실채권 발생과 신용시장 침체가 민간부문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동 산유국의 경제회복은 국제유가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에너지부문 및 공공부문의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

- 중동 산유국의 경우 재정위기 리스크는 낮으나 현재까지 대형 부실채권 발생이 잇따르고 신용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부문 회복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출구전략 시점과 연동된 출구전략 시행이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의 출구전략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시점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주요 산유국들은 대대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조치 등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GCC 주요 산유국들이 달러페그(peg)제를 채택한 관계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미국의 금리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실제 지난 2007년 미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GCC 산유국들은 자국 내 물가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하에 맞춰 자국 정책금리를 인하한 바 있음.

18)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19) 이는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임.

다. 한 · 중동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여타 주요 경제권에 비해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 우리나라의 2010년 1~5월(누적) 총 수출금액은 1,79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 증가하였으나, 대중동 수출은 107억 달러로 17.4%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됨.

- 이는 여타지역의 경우 2009년 수출급감 이후 2010년 수출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한편 중동 현지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됨.

■ 사상 최대 플랜트 수출실적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2009년 대중동 플랜트 수출액은 312억 달러로 전체 플랜트 수출(463억 달러)의 67%를 차지하며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함.

- 2010년 상반기 대중동 플랜트 수출액은 약 194억 달러로, 사상최대 플랜트 수출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같은 기간 대중동 수주금액이 총 수주액의 76%를 차지할 만큼 중동지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수출 및 수주 대상지역으로서 중동시장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의 오일머니 재유입과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및 건설 · 플랜트 수주 대상지역으로서 중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 가스 수입액 증가로 대중동 무역수지 적자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임.

연구진

* 국번: (02) 3460

한바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 · 중동팀 부연구위원
(brhan@kiep.go.kr, Tel: 1110)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아 · 중동팀 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1092)

3. 아프리카

가. 최근 경제 동향

■ 경기회복세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아프리카의 경기는 세계경제가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중임.

○ 아프리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 국제상품가격 및 수출 등을 통해 대외경제의 영향을 받음.

○ 수출은 2009년 2월 저점을 기록한 후 세계경제 안정화로 인한 수요 증가 및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과 함께 다시 회복세를 보임.

그림 1. 아프리카의 對 세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10. 6), *Direction of Trade.*

- 남아공은 2010년 1분기 동안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이후 처음 플러스 성장을 시현

표 1. 아프리카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이집트	4.3	4.5	4.5	5.0	5.8
나이지리아	4.5	7.2	7.1	7.4	7.4
DR콩고	-2.2	0.1	0.6	1.2	2.8
남아공	-0.4	-2.5	-2.6	-1.6	1.4
튀니지	1.8	2.8	3.4	4.3	4.5

자료: AFDB, Quarterly Statistical Bulletin, 나이지리아 통계청.

- 나이지리아, 앙골라를 비롯한 산유국[20] 역시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 및 수출 회복 등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임.

■ 6%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 2008년 하반기 정점을 기록하였던 인플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6%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

- 특히 남아공의 5월 물가는 4.6%로 근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표 2.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아프리카	11.5	8.9	6.5	6.5	6.3
남아공	8.4	7.7	6.4	6.0	5.7
보츠와나	12.0	8.5	6.4	5.6	6.1
튀니지	3.2	3.3	4.2	4.6	4.6
가나	20.2	20.5	19.5	17.0	14.1
나이지리아	14.3	12.5	12.9	12.0	12.1

자료: AFDB, *Quarterly Statistical Bulletin.*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국제상품가격 상승 및 수출 호조 등으로 2010년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하반기 아프리카는 대외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호조세, 국제상품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자본 및 송금액 유입 증가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요 증가는 상품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09년 전년대비 약 3% 감소했던 해외송금액은 2010년 1.8%로 증가할 전망임.

-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2010년 성장률을 4.2~4.7%, 2011년 성장률을 5.0~5.9%로 전망하고 있음.

○ 산유국의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7.1%로 상승할 전망임.

20) 아프리카 내 산유국은 앙골라, 카메룬,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과 나이지리아 7개국임.

표 3.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2010년	2011년
IMF	4.7	5.9
OECD	4.5	5.2
Global Insight	4.2	5.3
EIU	4.3	5.0

자료: IMF(2010. 4), *Regional Economic Outlook*; OECD(2010. 5), *African Economic Outlook*; EIU(2010. 5), *ViewWire*; Global Insight(2010), *Monthly Outlook*.

- 권역별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동아프리카 5.3%, 서아프리카 4.7%, 북아프리카 4.1%, 남부아프리카 4.1% 등임.

- 남아공은 월드컵 효과 등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앙골라와 DR콩고 역시 석유 생산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非석유부문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월드컵을 통해 남아공은 GDP가 약 0.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Economic Report on Africa*(2010)에 따르면 DR 콩고와 앙골라는 건설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2010년 각각 12.2%와 9.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존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 우려

- 유로존 위기로 인해 對유럽 수출 및 유럽으로부터의 송금액이 감소하면 아프리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AfDB는 유로존 위기로 아프리카 2010년 성장률이 0.5~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 함.

○ 아프리카 수출에서 유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임.

■ 안정적인 물가 전망

- 2010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IMF(2010)에 따르면 2010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0%, 2011년은 6.9%로 전망됨.

- 그러나 산유국의 경우 석유 수출로 인한 재정 확대로 정부 지출 이 증가하여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짐.

○ IMF는 산유국의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1.5%, 2011년은 9.0%로 예측함.

다. 한 · 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시사점

■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함.

-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 성장과 소비 증가로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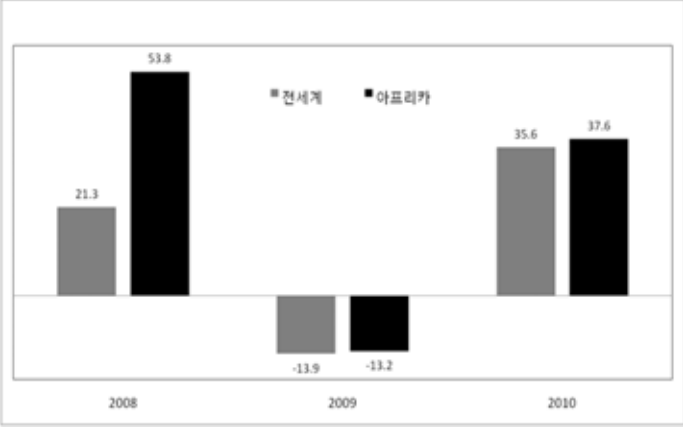
○ 2003~08년 동안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4.3%보다 높은 연평균 5%의 성장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중남미 및 동남아보다 높은 24%를 기록함.

- 2010년과 2011년 급속한 경제 회복세가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53.8% 증가하여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의 2배 이상 상회함.

그림 2. 우리나라의 전 세계 및 아프리카 수출증가율

(단위: %)



주: 2010년은 1~5월 기준임.
자료: 무역협회.

- 하지만 對아프리카 교역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교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1.7%밖에 되지 않았음.

○ 우리가 아프리카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대부분 광물과 원유 등 1차 생산품이고 주요 수출품은 선박, 차량, 송수신기기, 의류 등임.

- 이와 같은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진

* 국번: (02) 3460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아 · 중동팀 연구원
(mhkim@kiep.go.kr, Tel: 1154)

4. 중앙아시아

가. 최근 경제 동향

■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10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7%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었음.

- 중앙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가스, 면화, 광물 자원 등의 국제 가격 상승은 이 지역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에너지 관련 플랜트 건설 및 인프라 건설, 주택 건설 등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여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 에너지 비수출국의 경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와 정치 분쟁으로 경제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카자흐스탄 경제는 은행권 채무재조정 성공과 국제 유가 상승 및 금속 광물 가격 상승으로 금융위기 후 상당한 회복세를 보임.

- 1/4분기 GDP 성장률이 7.1%를 기록함. 산업생산은 11.8% 증가했으며, 이 중 광업부문이 7.8%, 제조업이 18.7% 증가하여 성장을 견인하였음.

○ 이는 국제 유가 상승과 금속 광물 가격 상승, 국내 건설 경기 호황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 최근 BTA와 Alliance은행이 최근 채무재조정에 성공해 금융부문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20% 이상 이어서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함.

■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이후부터 지속된 7% 이상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1/4분기 7.6% 성장의 바탕은 국내 인프라 개발 확대로 인한 건설 경기 호황과 국제 원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섬유부문 생산 및 수출 증가임.

○ 특히 건설부문은 도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 건설 투자 증가로 20.1% 이상 성장하면서 GDP 성장을 견인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이외의 가스 수출 루트 확보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정책 시행 등으로 경제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

- 2009년 말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완공으로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현재 10억 m^3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수출 및 투자 증대, 수송로 건설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현재 2030 장기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슬람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을 통한 인프라 및 산업설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0년에 IDB와 ADB로부터 각각 3억 7,000만 달러, 2억 3,00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함.

■ 키르기스스탄은 4월 과도정부 수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고성장을 달성한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음.

- 1/4분기 GDP 성장률은 국제 금 가격 상승과 생산 증대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으며, 총 산업생산 78.8%, 고정자본투자 19.8% 등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음.

- 4월 과도정부 수립 및 유혈사태로 인해 실업률 증가, 국내투자 및 대외교역 부진, 금융권 기능 상실 등 경제·사회 상황이 악화됨.

○ 정국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1~5월간 GDP 성장률은 9.7% 증가했고, 산업생산은 56.8%, 고정자본투자는 13.1% 증가하는 등 여전히 성장세로 분석됨. 광산업체인 쿰토르(Kumtor)에 의한 금 생산 및 수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타지키스탄 경제는 알루미늄 광물 자원 가격 상승과 관련된 산업생산의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됨.

-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고, 산업생산은 16.3% 증가하였음. 이는 국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생산 및 수출 증대로 인한 수익분이 82%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이 부문은 GDP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우즈벡 국경 지역 수송로 건설 지연, 수자원 분쟁 및 키르기스스탄 유혈사태로 인한 교역 및 투자 감소 등에 의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표 1. 중앙아시아 5국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항목	실질 GDP 성장률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연도 (기간)	2007	2008	2009	2002~09 평균	2010 1/4 분기	2002~09 평균	2002~09 평균
카자흐	8.9	3.2	1.2	7.7	7.1	22.6	20.6
우즈벡	9.5	9.0	8.1	7.1	7.6	15.5	11.9
투르크멘	8.5	10.5	6.1	6.4	-	18.6	15.4
키르기즈	8.5	8.4	2.3	4.5	16.4	15.6	24.0
타직	7.8	7.9	3.4	8.1	7.2	4.6	18.9

자료: ADB(2010); Global Insight(2010); 국가별통계위원회.

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반기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기존의 에너지 수입국인 러시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수출국들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은 2010년 상반기 주요 경제 문제였던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2010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국영은행들이 향후 외국은행에 매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국영은행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출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으로의 가스 수송로가 건설되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월부터는 주요 가스 생산지인 남욜로탄에서 카스피해로 연결되는 국내 가스관 공사가 착공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석유, 가스와 광물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증가 지속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에너지 자원 수입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GDP 중 해외노동자의 송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점진적인 경제 회복에 따라 느린 경제 회복이 예상됨.

○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정치적 혼란이 2010년 6월 말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계기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경제전망은 불투명함.

표 2. 2010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0년 전체 전망		
	EBRD	EIU	IMF
카자흐	3.5	4.2	2.4
우즈벡	8.2	8.3	8.0
투르크멘	12.0	9.0	12.0
키르기즈	-0.7	3.5	4.6
타직	4.0	4.0	4.0

자료: EBRD(2010. 5); EIU(2010. 6, 7월), 국별리포트; IMF(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다. 한 · 중앙아시아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은 증가추세를 기록함.

표 3. 2010년 1월~5월 한 · 중앙아시아 수출입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 달러, %)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카자흐	207,588	104.8	114,257	55.8
우즈벡	586,018	26.1	10,144	-45.9
투르크멘	22,616	9.3	292	-46.4
키르기즈	43,382	3.3	286	-22.4
타직	12,253	11.9	41,901	1,307.5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건설 중장비, 의약품 등임.

-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합금철, 동, 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 수입이 증가하였음.

- 1월부터 5월까지의 무역수지는 7억 4977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무역수지인 5억 4000만 달러보다 약 40% 증가함.

■ 중앙아시아 각국이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석유 가스, 인프라 건설 및 사회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건설을 우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이 우선되어야 함.

○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은 2009년 3월 25일 한전, 삼성 C&T, 삼룩에네르고사가 함께한 45억 달러, 1,300MW(650 x 2기)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로 2010~17년 진행 예정인 사업임.

○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은 2010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시 동 부문 개발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수르길 프로젝트 투자협정서를 체결하여 본격화됨.

○ 2010년 1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LG상사컨소시엄이 13억 3,611만 달러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건설 수주에 성공하여 진행 중임.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물개발 및 금속가공분야,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 국제공항 건설과 섬유,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금속가공, 플라스틱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전망이 밝고,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원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낙후된 인프라 복구를 위한 ODA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연구진

* 국번: (02) 3460

이시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shylee@kiep.go.kr, Tel: 1234)

조영관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초청연구원
(ykjo@kiep.go.kr, Tel: 1209)